

비판적 뉴스 이용 전략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뉴스 피로감,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ritical News Use Strategies:
Focusing on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News Fatigue, Political
Sophistication, Knowledge System of News, and News View

이정훈

대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Jeng Hoon Lee(jenghoonlee@daejin.ac.kr)

요약

이번 연구는 사람들의 비판적 뉴스 이용 전략에 대한 뉴스 피로감,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 등의 독립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성찰적 뉴스 이용과 정파적 뉴스 이용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과 이원 분산분석이 활용되었다. 예상과 달리 비판적 뉴스 이용에 대한 뉴스 피로감의 양적 연관 관계가 관찰되었고 뉴스 피로감과 다른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이 이용자들의 뉴스 처리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번 연구는 가짜 뉴스를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뉴스 이용 전략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뉴스 피로감 | 가짜 뉴스 | 비판적 뉴스 이용 | 뉴스 교육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news fatigue, political sophistication, knowledge system of news, and news view on reflective news use and partisan news use.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wo way ANOV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ews fatigue and critical news use strategies was found. Exploring the factors to news processing strategies, the study suggested the potential direction of news education.

■ keyword : | Fake News | News Fatigue | Critical News Processing Strategy | News Literacy Education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뉴스의 형식으로 SNS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통 매체(legacy media)를 통해

서 전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만우절 ‘장난’부터 날조된 ‘정치적 선동’까지 내용도 다양한데 최근 선거나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 과거 악의적으로 조작된 커뮤니

니케이션 현상을 지칭한 ‘유언비어’[2]처럼 최근 가짜뉴스 현상도 해결돼야 할 커뮤니케이션의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한 국내 논의들은 과거 유언비어처럼 주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유언비어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를 식별하고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2], 국내 가짜뉴스 관련 논의들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3] 가짜 뉴스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적 장치의 도입 등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 하지만, 다매체 미디어 생태계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출처를 관리한다는 전제는 비현실적이고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뉴스 과잉 환경은 가짜뉴스를 양산할 수도 있지만 가짜뉴스를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은 뉴스 이용자에게 이전에는 없던 선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적화하면서 비판적으로 뉴스를 이용한다면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양한 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각자 가짜뉴스를 적절하게 검증하는 비판적 뉴스 이용 전략이 필수적이다. 최근 뉴스 과잉 환경으로 초래된 새로운 뉴스 이미지와 이에 관련된 사용자들의 특성들은 뉴스를 선별하고 활용하는 뉴스 이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뉴스 이용 전략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련된 논의들을 심층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번 연구는 사람들의 뉴스 이용 전략 과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가짜 뉴스를 대처할 수 있는 성찰적 뉴스 이용과 정파적 뉴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짜 뉴스에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뉴스 이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피로감,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 등의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매체 디지털 매체를 통한 ‘뉴스 과잉’으로 인한 ‘뉴스 피로감’에 대한 관심은 탐색적인 수준이지만[5], 최근 급변하는 뉴스 생태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과 이원 분산분석을 활용한 이번 연구는 뉴스 피로감과 더불어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이 뉴스 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를 관찰하고 독립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뉴스 이용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1. 새로운 뉴스 생태계와 뉴스 이용 형태

전통적으로 뉴스는 항상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별한’ 콘텐츠로 인식되어 왔다. 뉴스의 다양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전통적이면서 핵심적인 가치 중의 하나로 오랜 동안 인식되어 왔다[6]. 다양하고 많은 뉴스의 공급은 뉴스의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뉴스 고이용자와 저이용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복지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7]. 다양성의 증가는 대중매체 중심의 기존의 정치 역학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8].

다양한 형태의 뉴스 생산과 유통의 확산과 개인화된 뉴스 이용 형태의 보편화는 이용자의 선호도를 세밀하게 반영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뉴스 생산과 유통에 대한 물리적 제약은 줄어들고 뉴스의 유통은 제한적 공급이 아니라 대량 배포의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9]. 뉴스 이용자들도 더 이상 한두 개의 매체에만 의존해서 뉴스를 이용하지 않고 수시로 다양한 채널이나 디바이스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10][56].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급 때문에 유언비어가 발생했다면[17], 최근 가짜 뉴스 현상은 오히려 정보 과잉, 뉴스 과잉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모바일 미디어환경에서 뉴스의 공급과 확산의 주기들이 급속도로 짧아지고 뉴스 생산 순환 구조가 다양화되고 파편화되었다. 뉴스 생산과 유통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비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검증되거나 정제되지 않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는 전통적 매체와는 달리 최근의 모바일 디지털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의 개인화는 개인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이 수월해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뉴스 이용의 개인화는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유사한 뉴스나 정보를 주로 접하거나 동일한 관점의 뉴스나 소식에만 편향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가짜 뉴스가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 가짜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2. 비판적 뉴스 이용 전략

최근 사람들이 부정확하거나 편향되게 제공된 정보나 주장에 의해 현혹되는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뉴스 과잉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뉴스 콘텐츠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실증적 회의주의'(empirical skepticism)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뉴스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실증적 회의주의는 주어진 뉴스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 포함된 사실(fact)과 주장(argument)을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15].

뉴스를 위한 정보 처리 전략(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y)은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가치, 취향 등을 반영하는 일종의 '버릇'처럼 자신만의 이용 형태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효율적인 미디어 이용을 위해 자신

만의 정보 처리 전략(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y)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게 된다[14][16]. 뉴스 과잉 환경에서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뉴스를 활용하는 정보 처리 전략의 개념으로는 '적극적 정보 처리(active processing)'와 '성찰적 통합(reflective integration)'을 들 수 있다[16].

적극적 정보 처리(active processing)는 뉴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뉴스의 질이나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다양한 뉴스를 검색하고 이용하면서 뉴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용 형태라고 할 수 있다[17]. 이런 사람들은 뉴스에서 특정 정보가 빠지거나 특정 관점만 포함되거나 생략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뉴스 내용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뉴스 제작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나 영향력에 의해서 특정 이야기가 배제되거나 제한적일 것을 고려하면서 보도된 이슈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용 형태를 의미한다[16]. 적극적 정보 처리의 개념은 다소 규범적인 개념으로 실증적인 분석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파적 뉴스 이용은 적극적 정보 처리와는 상반된 '선택적(selective)' 뉴스 이용 전략을 표현하는데 자신의 관점이나 신념에 적합한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이용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18]. 최근 뉴스 과잉 생태계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고 선호하는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신념을 확실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뉴스들이 공급되면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정파적 뉴스 이용자는 다양한 뉴스를 비교, 검증하는 인지적 노력(cognitive effort)을 높이기보다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외형적 신호에 의지해서 뉴스를 이용하게 된다[13].

뉴스의 정파적 이용은 다양하고 때때로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이 동시에 제공되는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피하고 자신들에게 선호하는 뉴스를 효율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용함과 복합적인 사회 현실(social reality)에 대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19]을 강화할 수 있다[21][22].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뉴스 콘텐츠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파적 선택성이 감소하는 사례도 많지만

[19][23], 정치 관심이 높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높을 수록 보다 선택적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24]. 하지만, 뉴스 과잉 환경에서 뉴스를 특정 관점이나 가치관만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전략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찰적 통합(reflective integration) 이용 전략은 사람들이 뉴스를 잘 이해하기 위한 심사숙고(deliber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인지적 틀(cognitive frame)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이용 전략이다[16][25]. 성찰적 통합은 특정 뉴스에 포함된 여러 정보를 추후 새롭게 분석하면서 포함된 정보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후에도 토론하거나 고민하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용 형태이다[26]. 뉴스의 성찰적 통합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동일한 관점의 뉴스를 통한 확증 편향을 회피하고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이용 형태를 의미한다. 뉴스에 포함된 정보나 사실(fact)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하면서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는 이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뉴스의 이용이나 활용은 자신들이 수용하거나 확립하고 있었던 기존의 의미론적 틀(frame)만을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비판이나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뉴스를 성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통적 게이트키퍼들의 검증 기능이 약화된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뉴스 소비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게이트키퍼(legacy media)에 의한 뉴스에 대한 추천보다는 서로 취향이나 관점이 유사하는 사람들의 추천과 공유에 의해서 뉴스를 선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무의적으로 편향적 성향이 강화되게 된다[20]. 따라서 뉴스의 성찰적 이용을 통해서 주어진 뉴스 콘텐츠에 대한 검증이나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평가를 추구하는 이용전략은 가짜 뉴스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3. 뉴스 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최근 뉴스 생태계나 혹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

의 평가나 전반적인 이미지는 뉴스 이용자들이 뉴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매체 뉴스 과잉 환경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뉴스에 대한 기대치나 이미지들이 제시되고 확산되고 있다. 개인화 미디어 이용 전략(processing strategies)은 이용자들이 가지는 미디어 콘텐츠 장르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 혹은 개인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14][16].

3.1 뉴스 피로감

뉴스 생태계의 뉴스 과잉 현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18년 미국 뉴스 이용 연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들은 최근 뉴스 생태계의 편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응답자의 70퍼센트 이상이 뉴스 이용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뉴스 피로감(news fatigue)'[28]은 뉴스 과잉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감을 표현한 개념이다. 이용자들은 원하거나 필요한 것보다 뉴스가 너무 많다고 느끼거나 쏟아지는 뉴스들의 흐름을 따라잡거나 효율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느끼게 되면서 불만족하거나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은 처리할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판단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학습 과정을 방해할 하는 일종의 '소음(noise)'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29]. 정보 과잉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보의 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한 메시지나 콘텐츠를 제외하고 피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적극적인 처리 과정에서 제외하게 된다[30][31]. 사람들은 정보가 과잉이라고 인식할 때 정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32].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 현상은 크게 객관적 정보 과잉과 주관적 정보 과잉으로 구분된다[33][34]. 일상생활에서 뉴스의 이용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주관적 정보 과잉(subjective Information overload)의 개념이 더 적절하다. 일상생활에서의 뉴스 콘텐츠의 이용과 활용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필요(need)에 의해 이용량이 결정되고 정보의 처리 수준

도 이용자의 필요나 능력에 의해 처리 정도가 주관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뉴스 이용 과정의 정보 과잉 인식 여부는 객관적인 조건(미디어 노출 정도, 뉴스 이용량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 과잉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인지적 부담(cognitive load)을 낮출 수 있는 이용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사람들은 처리해야 할 정보와 무시할 정보를 구분해서 선택하거나 즉시 처리할 정보와 미룰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12]. 뉴스 콘텐츠의 개별적 선택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우발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뉴스를 회피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기존의 가치관이나 관점에 일치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강화하게 된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인지적 틀에 부합하는 정보나 주장은 상대적으로 쉽게 기억되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나 주장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무시하고 기존의 믿음이나 주장에 부합되는 뉴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21][35].

연구가설 1-1: 뉴스 피로감이 높아질수록 성찰적 뉴스 이용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1-2: 뉴스 피로감이 높아질수록 정파적 뉴스 이용은 커질 것이다.

3.2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뉴스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실에서 뉴스 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비판적 뉴스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뉴스 콘텐츠의 특수성은 크게 두 가지 층위의 지식 체계(knowledge system)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뉴스 콘텐츠의 구조나 구성에 대한 지식체계와 뉴스 제작 관련 지식체계이다. 뉴스 콘텐츠의 구조적 측면은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뉴스의 형태나 구성 방식에 대한 지식 체계를 의미하고 뉴스 제작 관련 지식체계는 뉴스 제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제작 관행이나 관련된 의

사결정 역학 관계에 대한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 [36][55].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수준은 사람들이 뉴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뉴스를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뉴스 제작 과정을 구성하는 절차, 이에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 뉴스 가치(news value)와 같은 독특한 가치관 등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 지식과 뉴스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뉴스 제작 과정의 의도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37].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뉴스 콘텐츠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인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뉴스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뉴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나 자료를 보다 방어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30]. 뉴스 과잉의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보다 의식적으로 뉴스 콘텐츠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뉴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뉴스 제작 과정의 의도성이나 뉴스 제작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뉴스 매체나 뉴스 전반에 대해 비판적 평가나 태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는 오히려 뉴스 이용과 활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과 다른 뉴스에 대해 적대적으로 평가하는 '적대적 매체 효과(hostile media effect)'[38]가 발생하는 경우, 전반적인 뉴스 매체에 대해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뉴스 매체에 드러난 편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뉴스 내용을 평가하고 구분하게 되면 개별적 뉴스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관적으로 뉴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

연구가설 2-1: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가 높을수록 성찰적 뉴스 이용은 커질 것이다.

연구가설 2-2: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가 높을수록 정파적 뉴스 이용은 줄어들 것이다.

3.3 정치적 세련도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 혹은

‘정치적 성숙도’는 정치적 문화처럼 장기적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차원에 관찰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이나 형태를 표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정치적 세련도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단편적 지식 이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39]. 정치적 현시성(salience), 정치 지식, 정치적 개념화 등의 세 가지 개념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40].

정치적 성숙도는 전통적으로 관련 정보의 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매개로서 간주되어 왔다. 뉴스 콘텐츠는 여타 다른 미디어 콘텐츠에 비해 정치적 지식이나 관심이 더 요구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사실(fact)을 근거로 작성되지만 뉴스에 포함된 사실(fact)이 함의하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잘 이해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 적절하게 재구성되었을 때 궁극적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14].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정치적 절차들이나 정치적 이슈를 결정하는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뉴스에 보도되는 정치적 사건이나 행사(event)의 상호 연관성, 정치적 이슈의 역사성이나 복합적인 특성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어렵다[41].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세련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정향욕구)이 강하고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42]. 또한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정치적 정보나 뉴스를 평가하는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43]. 정치적 세련도가 높고 투표와 같은 정치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뉴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경우 정치적 지식이나 경험도 낮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정치적 뉴스나 정보에 더 많은 노출되기 마련이다[44]. 따라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뉴스에도 더 많이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연구가설 3-1: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성찰적 뉴스 이용은 커질 것이다.

연구가설 3-2: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정파적 뉴스 이용은 줄어든 것이다.

3.4 뉴스관

‘뉴스가 무엇인가’ 혹은 ‘뉴스의 기능이나 효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용자 개개인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뉴스의 이용 여부 그리고 뉴스 콘텐츠의 선택 성향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뉴스 형태의 대중화와 뉴스 과잉 현상으로 뉴스에 대한 정의나 이미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뉴스 콘텐츠에 가지는 관점 혹은 예상이나 기대는 뉴스 선택과 이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45][46].

사람들이 뉴스에 가지는 전반적인 이미지에 따라 뉴스 이용 경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스의 주요 효용은 정보 습득, 오락 추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자들이 가지는 뉴스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뉴스를 선택하게 하거나 관련 기사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 뉴스의 정보성, 공정성, 흥미성, 계몽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은 신뢰성 확인도 하고 분석적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뉴스의 정보성에 초점을 두지 않는 뉴스 이용자들 중 ‘덧글 쓰기’와 ‘퍼나르기’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유사하게 큐레이팅 뉴스 서비스 이용자들도 뉴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능동적 뉴스 이용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8].

이용자들이 가지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효용 가치에 대한 관점은 뉴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뉴스 선택과 이용에 이용자들이 투자하는 비용이나 노력을 보다 쉽게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의 효용성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인 인식은 뉴스의 적극적인 이용과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특히 이용자의 가치관에 일치하지 않는 뉴스를 이용하는 경향에도 양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9]. 또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현실(social reality)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뉴스 이용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뉴스를 소비하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수록 인지적 부담

이 높은 뉴스 이용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16].

연구가설 4-1: 뉴스관이 긍정적일수록 성찰적 뉴스 이용은 커질 것이다.

연구가설 4-2: 뉴스관이 긍정적일수록 정파적 뉴스 이용은 줄어들 것이다.

3.5 독립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뉴스 피로감은 뉴스 이용자들의 특성이나 여타 조건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뉴스 이용 정도와 피로감은 선형적이기 보다는 역U자형 형태로 나타났는데, 뉴스 저이용 그룹(주당 두 시간 이하)이나 뉴스 고이용 그룹(주당 7시간 이상)에 비해서 중이용 그룹(주당 3~6시간)이 더 높은 정보 과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이용 매체별 차이도 일관되지 않았는데, 온라인 뉴스 시 정보 과잉을 느끼지 않지만[51], 신문이나 TV 같은 매체를 통해서 뉴스 이용하는 경우 과잉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했다[50]. 반면 다른 국내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에서는 과잉을 느끼지만 오프라인 뉴스 이용의 경우 이용량과 뉴스 과잉 인식과는 상관관계를 관찰하지 못했다[5].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뉴스 피로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뉴스 피로감과 뉴스에 대한 지식체계, 정치적 세련도, 그리고 뉴스관 등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뉴스 이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이기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의 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뉴스 피로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스 제작 과정의 의도성이나 편향성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경우 뉴스의 다양성의 가치나 유용성을 이해하고 보다 비판적으로 뉴스를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뉴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경우 현재 뉴스 과잉 현상의 부정적인 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뉴스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대안적 정보나 해석을 추구하지 않게 될 수 있다[52]. 또한 뉴스에 대한 평가나 기대치가 낮은 경우에도 양질의 뉴스나 정보를 추구하게 되거나 대안적인 뉴스에 대한 필

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뉴스 과잉으로 인한 뉴스 피로감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독립변인의 상호작용은 성찰적 뉴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독립변인의 상호작용은 정파적 뉴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이번 연구는 뉴스 이용 전략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수강한 총 30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40퍼센트였고 사회과학 전공자가 전체의 약 80%, 인문 3.3%, 그리고 이공계 약 17%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각각 26.4%, 26.1%로 분석되었고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28% 과 19.5%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했는데 뉴스 이용 전략에 대한 뉴스 피로감,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그리고 뉴스관의 주효과(main effect)와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뉴스 이용 전략에 미치는 뉴스 피로감과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 등의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2. 변인의 조작적 정의

2.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들의 뉴스 이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컴퓨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소셜미디어, tv 등 총 9개의 매체를 통한 하루 평균 뉴스의 이용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평균적으로 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이 가장 높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이용량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하루 뉴스 이용량은 매체별로 최대 평균 약 1시간 26분이고 최소 평균 이용량의 경우 5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뉴스 이용 정도를 질문한 5점 척도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10.7%가 뉴스를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3.6%가 뉴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뉴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1.6%)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1%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약 89% 정도는 자신은 보통 이상으로 뉴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11점 척도로 구분하여 가장 진보적(0점), 중도(5점), 가장 보수적(10점)의 형태로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약 34%가 진보적(0점 ~ 3점), 약 58%가 중도(4점 ~ 6점), 약 8.8%가 보수(7점~ 10점)이라고 응답했다.

2.2 뉴스 피로감

뉴스 피로감(news fatigue)은 사람들이 뉴스 생태계에서 뉴스 과잉 때문에 뉴스를 이용하거나 처리할 때 느끼는 부담이나 부정적인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전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 문항을 채택하지 만[5][53], 이번 연구에서는 뉴스 피로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많아 ... 이용하기 부담스럽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필요한 뉴스 확인하기 어렵다', '... 원하는 뉴스를 찾아 보기 어렵다' 등 뉴스의 특성을 반영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α =.831, m =15.68, $s.d$ =3.82).

2.3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체계는 이용자들이 뉴스 특수성을 얼마나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지식 체계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편집된 사실', '조직적 협업에 의한 생산물', '취재원과 정보원에 의해 영향', '매체의 관점을 반영', '상업적 이해관계의 결과물', '흥미 요소가 있는 사안 보도', '선택적 전달',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s α =.848, m =30.08, $s.d$ =4.58).

2.4 정치적 세련도

정치적 세련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관심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지표를 구성하게 된다[54]. 이번 연구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지식, 정치적 제도에 대한 지식, 정치인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한 문항들로 정치적 세련도를 개념화하였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측정 문항들은 세 가지 영역의 지식을 반영한 14개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을 아는지를 묻는 5문항, 주요 공직자들의 이름을 아는지를 묻는 4 문항, 그리고 대통령 임기, 교섭단체 구성 요소 등의 정치 제도 관련 지식을 묻는 5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m =7.55, 최대=14, 최빈=8).

2.5 뉴스관

이용자들의 뉴스관은 이용자들이 뉴스 콘텐츠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이나 평가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사람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용 동기인 '유용성, 재미, 연관성'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포함한 세 개의 문항으로 뉴스관 변인을 개념화하였다(Cronbach's α =.757, m =10.94, $s.d$ =2.01).

2.6 성찰적 뉴스 이용

성찰적 뉴스 이용은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 과정에서 얼마나 성찰적 통합(reflective integration)을 시도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뉴스의 성찰적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뉴스의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 '언론사 확인', '이해되지 않을 때 주변에 물어본다', '뉴스 이해를 위해 추가 정보 탐색',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25]. (Cronbach's α =.647, m =21.8534, $s.d$ = 4.79597).

2.7 정파적 뉴스 이용

뉴스의 정파적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이번 연구는 이

용자들이 다양한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는 '적극적 뉴스 이용'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이용한 뉴스의 정파적 이용 변인은 수치가 낮을수록 이용자의 신념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회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파적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검색', '다른 입장의 뉴스 비교', '나와 다른 입장의 언론사 뉴스 이용' 등 총 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Cronbach's α =.800, m =8.86, $s.d.$ =2.62).

V. 연구 결과

이번 연구는 이용자의 뉴스 피로감,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그리고 뉴스관이 비판적 뉴스 이용 전략인 뉴스의 성찰적 이용과 정파적 이용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와 해당 독립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였다.

뉴스의 성찰적 이용과 독립변인들 간의 주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이 느끼는 피로감, 정치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 모두 성찰적 이용과 양(+)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뉴스 피로감, 정치 세련도, 뉴스관 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2-1, 3-1, 4-1). 따라서 뉴스 피로감과 뉴스의 성찰적 이용과의 음(-)적 관계를 제시한 가설은 기각되었고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 변인들이 뉴스의 성찰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한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표 1].

예상과는 다르게 이용자들의 뉴스 피로감이 클수록 뉴스를 성찰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관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뉴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성찰적 이용의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뉴스 피로감과 정치적 성숙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 등의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뉴스의 성찰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뉴스 피로감과 뉴스 지식 체계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성찰적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음(-)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 피로감과 정치 세련도의 상호작용은 성찰적 이용에는 음(-)적인 관계, 피로감과 뉴스관은 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두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뉴스의 성찰적 이용에 대한 주효과에 대한 모형 1과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모형 2의 R 제곱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성찰적 이용에 대한 독립변인 영향 다중회귀분석

성찰적 뉴스 이용(비표준화 계수 β)		
	모형 1	모형 2
상수	4.551	
뉴스 피로감	.057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087*	
뉴스관	.387***	
정치적 세련도	.145**	
정치 성향	-.097	
상수		4.812
뉴스 피로감		.099*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063
뉴스관		.384***
정치적 세련도		.128**
정치 성향		-.106
피로감 * 정치 세련도		-.115
피로감 * 뉴스 지식 체계		-.458**
피로감 * 뉴스관		.059
R^2	.202	.233
R^2 변화량		.031***
F값	15.209	11.306
유의확률	.000	.000
Durbin - Watson		1.805

뉴스의 정파적 이용과 독립변인들 간의 주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뉴스 피로감과 뉴스관 변인들이 뉴스의 정파적 이용에 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2, 2-2, 3-2, 4-2). 뉴스관이 정파적 이용 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뉴스 피로감도 정파적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와 정치 세련도 등의 변인들은 뉴스의 정파적 이용과는 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뉴스 피로감과 뉴스 지식 체계, 뉴스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뉴스의 정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피로감과 뉴스 지식 체계 그리고 피로감과 뉴

스관 등의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뉴스의 정파적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모두 음(-)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 피로감과 정치적 세련도 간의 상호작용은 정파적 이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 p < .05$).

정파적 이용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직접적 영향(main effect)에 대한 모델 (모형 1)과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모델 (모형 2)의 R 제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 따라서 뉴스 피로감과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그리고 뉴스관 등의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표 2].

표 2. 정파적 이용에 대한 독립변인 영향 다중회귀분석

정파적 뉴스 이용 (비표준화 계수 β)		
	모형 1	모형 2
상수	3.800	
뉴스 피로감	.041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003	
뉴스관	.338***	
정치적 세련도	.022	
정치 성향	.110	
상수		4.015
뉴스 피로감		.090*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018
뉴스관		.333***
정치적 세련도		.005
정치 성향		.078
피로감 * 정치 세련도		.132
피로감 * 뉴스 지식 체계		-.387**
피로감 * 뉴스관		-.328*
R^2	.078	.121
R^2 변화량		.042**
F값	5.111	5.115
유의확률	.000	.000
Durbin - Watson		1.977

예상과는 달리 이용자들의 뉴스 피로감이 높을수록 뉴스의 선택과 활용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뉴스의 효용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수록 뉴스의 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뉴스 혹은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와 정치적으로 세련될수록 뉴스의 이용이 자신의 관점과 유사한 뉴스나 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용자의 뉴스 피로감과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

스관 등의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뉴스의 성찰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뉴스 피로감과 뉴스 지식 체계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성찰적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음(-)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 뉴스의 성찰적 이용에 대한 직접적 영향(main effect)에 대한 모형 1과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모형 2의 R 제곱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표 2].

성찰적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뉴스 피로감과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룹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은 이용자들은 이해가 낮은 이용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뉴스의 성찰적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판적 이해가 높은 이용자들은 뉴스 피로감의 변화에 따른 성찰적 뉴스 이용의 정도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비판적 이해가 낮은 이용자들은 급격하게 성찰적 이용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 6.201, p = 0.13$)[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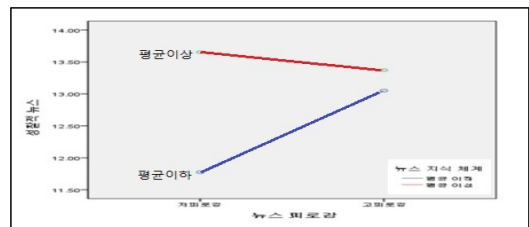


그림 1. 성찰적 이용에 대한 피로감과 지식체계의 상호작용

정파적 뉴스 이용에 대한 뉴스 피로감과 뉴스의 지식 체계 변인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그룹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은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은 이용자들은 뉴스 피로감이 증가할 경우 자신의 관점이나 신념과 유사한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커지지만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낮은 이용자들은 뉴스 피로감이 증가하는 경우 정파적 뉴스보다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 5.642, p = .018$)[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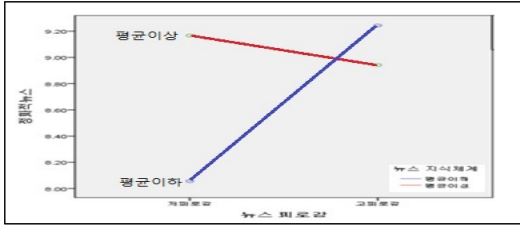


그림 2. 정파적 이용에 대한 피로감과 지식체계의 상호작용

정파적 뉴스 이용에 대한 뉴스 피로감과 뉴스관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뉴스 콘텐츠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는 이용자들에 비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관이 부정적인 이용자들은 뉴스 피로감이 상승할수록 다양한 관점의 뉴스의 이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뉴스에 대한 노출량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뉴스에 노출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 = 4.889, p = .028$)[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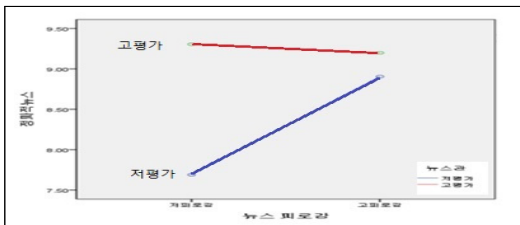


그림 3. 정파적 이용에 대한 피로감과 뉴스관의 상호작용

VI. 결론 및 논의

이번 연구는 뉴스 피로감,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그리고 뉴스관 등의 변인들이 이용자들의 뉴스 처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뉴스 피로감과 다른 독립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뉴스 처리 전략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았다.

뉴스 피로감, 정치적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뉴스관 등의 변인들이 이용자들의 뉴스 처리 전략에 유의미한 연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 피로감은 부정적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 이용 효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관도 뉴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으로 세련된 이용자들도 뉴스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적극적이고 성찰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뉴스를 접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뉴스 피로감과 정치 세련도,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 그리고 뉴스관 등의 변인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은 이용자들은 비판적 이해가 낮은 이용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뉴스의 성찰적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스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비판적 이해가 낮은 이용자들은 성찰적 뉴스 이용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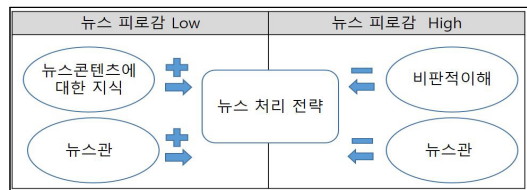


그림 4. 뉴스 처리 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뉴스 콘텐츠의 효용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들은 뉴스 피로감에 상관없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큰 반면 뉴스관이 부정적인 이용자들은 뉴스 피로감이 상승할수록 다양한 관점의 뉴스의 이용을 이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와 뉴스관은 전반적으로는 뉴스 처리 전략에 긍정적이지만 뉴스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반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번 연구 결과의 특이점이자 연구의 함의는 이용자의 뉴스 이용 전략에 대한 뉴스 피로감의 긍정적 영향과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뉴스 피로감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현상에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조사 대상인 20대 대학생들은 다매체 모바일 환

경에 익숙한 이용자이기 때문에 뉴스 과잉이라는 환경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당연한 조건'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백색 소음(white noise)'처럼 뉴스 이용의 만족감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들이 느끼는 뉴스 피로감과 뉴스 이용에서 오는 실제 부담의 차이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실제 보고된 뉴스 이용량은 상당히 낮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실질적 부담(work load)은 낮았지만 이용자들의 인식하는 뉴스 피로감만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응답자들이 뉴스 이용에 대한 반응을 다분히 규범적인 반응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 행동을 실제 자신들의 이용 행태보다 더 규범적이고 바람직한 행태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로는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은 이용자들이 성찰적으로 뉴스를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을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스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비판적 이해의 증가가 '적대적 매체 효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비판적 이해가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편향적인 뉴스 이용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이용자들이 오히려 편향된 뉴스 이용 행태를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이론적 기여는 기존의 규범적 접근을 중시하던 뉴스 교육 논의나 뉴스 리터러시 연구를 위한 실증적인 토대를 제시한 점이다. 뉴스 과잉 환경에서 뉴스 처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관찰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가짜 뉴스를 대처할 수 있는 뉴스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뉴스 교육

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뉴스 피로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면 가짜 뉴스에 대처할 수 있는 성찰적 뉴스 이용이나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뉴스 이용에 관련된 변인들의 주효과만이 아니라 변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로 확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뉴스에 대한 지식이나 비판적 이해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뉴스 과잉으로 피로감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적대적 매체 효과를 초래하고 편향적 뉴스 이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뉴스 교육 측면에서 뉴스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일차원적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뉴스 이용의 현실적 활용 가치나 정치적 세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요소들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의 조사과정의 몇 가지 한계점은 연구결과의 일반화 정도를 한정할 수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존의 초, 중학생 위주의 형태를 극복했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인구학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단순화해지고 표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위해 고안된 몇 가지 측정도구들은 복수의 설문문항을 통해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측정도구는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지만 몇 개의 측정 수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은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강석, "미국 대선 과정의 '가짜뉴스' 논란," 신문과 방송, 통권 523호, 1월호, pp.12-17, 2017.
- [2] 원우현, *유언비어론*, 청람논단, 1985.
- [3]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 1호, pp.53-101, 2017
- [4] 시사인, 가짜 뉴스 뒤의 가짜 정치. 2017.10.21.
- [5] 송해엽, 정재민, 김영주, "뉴스 과잉이 뉴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pp.48-50, 2015.
- [6] M. A. Stephens, *History of News*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7] S. Iyengar, K. S. Hahn, H. Bonfadelli, and M. Marr, "“Dark Areas of Ignorance” Revisited Comparing International Affairs Knowledge in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Research*, Vol.36, No.3, pp.341-358, 2009.
- [8] B. Bimber,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Vol.3, No.1, pp.133-160, 1998.
- [9] S. Robinson, “If you had been with us’: mainstream press and citizen journalists jockey for authority over the collective memory of Hurricane Katrina,” *New Media & Society*, Vol.11, No.5, pp.795-814, 2009.
- [10] N. Fenton, *New media, old news’: Journalism and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Sage Publications, 2009.
- [11] G. M. Kosicki, J. M. McLeod, and D. L. Amor, Processing strategies for mass media information: Selecting, integrating and making sense of the news, Unpublished manuscript, 1987.
- [12] R. Janssen and H. de Poot, “Information overload: Why some people seem to suffer more than others,” In *Proceedings of the 4th Nordic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changing roles*, pp.397-400, ACM, 2006.
- [13] L. M. Arpan and A. A. Raney,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news source and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80, No.2, pp.265-281, 2003.
- [14] S. Messing and S. J. Westwood, “Selective exposure in the age of social media: Endorsements trump partisan source affiliation when selecting news online,” *Communication research*, Vol.41, No.8, pp.1042-1063, 2014.
- [15] B. Kovach and T. Rosenstiel, *Blur: How to know what’s true in the age of information overload*, Bloomsbury Publishing USA., 2011.
- [16] G. M. Kosicki and J. M. McLeod, Learning from political news: Effects of media images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In S. Kraus (Ed.), *Mass communication and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pp.69-83, Hillsdale, NJ: Erlbaum, 1990.
- [17] G. Allport and L. Postman, *The Psychology of Rum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47.
- [18] 민영, “선택적 뉴스 이용,” *한국언론학*, 제60권, 제2호, pp.7-34, 2016.
- [19] S. Knobloch-Westerwick and B. K. Johnson, “Selective exposure for better or worse: Its mediating role for online news’ impa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9, No.2, pp.184-196, 2014.
- [20] E. Pariser, *The Filter Bubbles*, Penguin Press, 이현숙 역, 생각조종자들, 서울: 알키, 2011.
- [21] N. J. Stroud,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11.
- [22] C. Sunstein, *Republic. c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23] M. Prior,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No.16, pp.101-127, 2013.
- [24] M. S. Levendusky, “Why do partisan media polarize vie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7, No.3, pp.611-623, 2013.
- [25] M. S. J. M. McLeod, “Valu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Vol.18, No.3, pp.273-300, 2001.
- [26] W. P. Eveland Jr, “News information processing as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s and political knowledg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79, No.1, pp.26-40, 2002.

- [27] Pew Research Center, Fact Tank: News in the number, 2018.6.5.
- [28] R. Blinkoff and T. P. Johnson, "A New Model for News: Anthropological Research for the Associated Press," *Anthropology News*, Vol.51, No.4, pp.17-17, 2010.
- [29] C. Y. Chen, S. Pedersen, and K. L. Murphy, "Learners' perceived information overload in online learning via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Research in Learning Technology*, Vol.19, No2, 2011.
- [30] W. J. Potter, *Theory of media literacy: A cognitive approach*, Sage Publications, 2004.
- [31] R. E. Petty and J. T. Cacioppo,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In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pp.1-24, Springer, New York, NY. 1986.
- [32] C. Angeli, N. Valandies, and C. J. Bonk, "Communication in a web-based conferencing system: the quality of computer-mediated interaction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Technology*, Vol.34, No.1, pp.31-43, 2003.
- [33] J. M. Eppler and J. Mengis, "The concept of information overload: A review of literature from organization science, accounting, marketing, MIS, and related disciplines," *The Information Society*, No.20, pp.325-344, 2004.
- [34] K. N. Malhotra, "Reflections on the information overload paradigm in consum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4, No.10, pp.436-440, 1984.
- [35] A. H. Eagly and S. Chaiken, *Attitude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2005.
- [36] 이정훈, 이두황, *디지털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1.
- [37] W. J. Potter, *Media literacy*, Sage Publications, 2018.
- [38] A. C. Gunther and K. Schmitt, "Mapping boundaries of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4, No.1, pp.55-70, 2004.
- [39] 김도경,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2002 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제4호, pp.33-64, 2007.
- [40] W. R. Neuman, *The paradox of mass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45-57, 1986.
- [41] W. L. Bennett,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 [42] J. Matthes, "Need for orientation as a predictor of agenda-setting effects: Causal evidence from a two-wave pane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20, No.4, pp.440-453, 2008.
- [43] R. C. Luskin, Explaining political sophistication, *Political Behavior*, Vol.12, No.4, pp.331-361, 1990.
- [44] M. X. D. Carpini and S. Keeter,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Yale University Press. 1996.
- [45] 김은미, 이주현, "뉴스 미디어로서의 트위터,"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6호, pp.152-180, 2011.
- [46] 김균수, 송진, "누가 돈을 내고 뉴스를 이용할 것인가?: 디지털 뉴스 콘텐츠 지불의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4호, pp.134-161, 2011.
- [47] 임영호, 김은미, 김경모, 김예란,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뉴스이용,"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4호, pp.179-204, 2008.
- [48] 김동윤 김연식, 이현주, "큐레이팅 뉴스란 무엇인가?: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제17권, 제1호, pp.113-135, 2018.
- [49] 이종혁, "뉴스의 일탈성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6호, pp.1-109, 2009.
- [50] Q. Ji, L. Ha, and U. Sypher, "The role of news media us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possibility of information overload pre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8, pp.699-714, 2014.
- [51] E. Hargittai, W. R. Neuman, and O. Curry, "Taming the information tide: Perceptions of information overload in the American home," *The Information Society*, Vol.28, No.3, pp.161-173. 2012.
- [52] R. J. Pingree and E. Stoycheff, "Differentiating

cueing from reasoning in agenda-setting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63, No.5, pp.852-872, 2013.

[53] A. E. Holton and H. I. Chyi, “News and the overloaded consumer: Factors influencing information overload among news consumer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5, pp.619-624, 2012.

[54] 김도경,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Vol.23, No.4, pp.33-64, 2007.

[55] 이정훈, 이두황,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의 뉴스 콘텐츠 이용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대 뉴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pp.180-190, 2013.

[56] 최진봉, 이미선, “뉴미디어 시대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콘텐츠 소비실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207-218, 2016.

저 자 소 개

이 정 훈(Jeng Hoo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2000년 1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UGA) 매스미디어 석사
- 2006년 12월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 커뮤니케이션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저널리즘, 뉴스리터러시 교육,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분석